

勞作教育의 價値에 대한 考察

金 榮 龍*

〈 目 次 〉

I. 서 論	IV. 노작교육의 가치
II. 노작교육의 성격	V. 요약 및 결론
1. 노작교육의 의의	참고문헌
2. 노작교육의 성격	Abstract
III. 노작교육 사상의 역사적 배경	

I. 序 論

인간의 역사는 勞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일이 있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노작은 없어지지 않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작은 곧 인간의 활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모든 人間生活의 첫번째 基本條件이며, 노작에 의해서만 인간의 존재는 가능해 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일하는 것을 인간의 本質로 규정하여, 생각하는 인간(homo sapiens)과 일하는 인간(homo laborans)¹⁾이라 불러 왔다.

대한 민국 정부가 1948년에 樹立되고, 다음 해에는 이 나라 國民教育의 根幹이 되는 教育法이 제정되었다(법률 제 86호, 1949.12.31). 이 법의 제 1조에 보면 각급 학교 교육을 통하여 성취해야 할 教育理念과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 제 2조에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곱 가지의 教育方針이 명문화 되어 있다. 이 일곱 가지 교육방침의 하나로 7항에는 勤儉勞作하고 實務力行하며, 유능한 生産者요 현명한 消費者가 되어 건설한 經濟生活을 하게 한다²⁾고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상황 변화로 인하여 교육법은 30번 이상 개정된 바 있으나 이 항목은 단 한번도 바뀐 바 없다.

* 제주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교수

1) 김태길 외 3인, 삶과 일, 정음사, 1986, p.66.

2) 교육법전편찬회, 교육법전, 법제연구원, 1992, p.12.

教育法の 취지대로라면 우리 나라 각급 학교의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 우리 사회는 보다 勤儉勞作과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바람직한 社會生活이 영위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 보면 黃金萬能主義와 3D 현상이라고 하여 어렵고(difficult), 위험스럽고(dangerous), 더러운(dirty) 일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팽배하여, 제조 업체나 건설 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수입 문제까지 제기되므로 國際化, 開放化의 競爭時代 돌입과 더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社會風潮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오랜 동안의 가난을 해치고 놀라운 經濟成長을 이룩하면서 정치인들의 正義 社會實現의 의지와 역량의 부족, 경제인의 사회적·윤리적 道德性 결여, 일반인의 갑작스럽게 누리는 물질적 풍요에 의한 價値意識의 혼란과 勞動蔑視의 경향, 급속한 産業化에 의한 人口疏外 현상 등의 複合作用으로 이러한 揆出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나라 교육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온 教育者와 교육 관계자들에게도 그 책임을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장에서 勞作教育의 價値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는 것은 중요한 意義가 있을 것이다.

현행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행 학교 교육의 구조를 范式的 教育, 지식 위주의 교육, 일신 위주의 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의 근본 원인은 主知主義 教育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

主知主義 教育觀은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육과 삶으로서, 교육은 人類가 쌓아 온 위대한 文化遺産을 전달하는 과정이며, 인간의 삶은 인류의 文化遺産에 入門할 때 의미를 가진다. 둘째, 교육과 지식으로서, 교육을 통해 인류가 이룬 높은 문화유산은 전달하는 것 중 영원한 眞理를 지니는 理論的 知識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고, 이러한 지식의 추구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지 실제적 활동에 동원하는 수단이 아니다. 셋째, 교육과 인간으로서, 교육을 통해 추구하려는 教育的 人間象은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거나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특성인 理性的 能力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존재를 말한다⁴⁾.

고전적 자본주의 교육관은 여가를 누리는 상류 계급과 생산에 종사하는 계급을 구분하고 이를 정당화해주므로써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오히려 낮춘 셈이 되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도권 교육에 있어서는 일의 교육적 가치가 정상적으로

3) 김기민, 勞作教育의 性格과 價値,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p. 1.

4) O'Neill, W. F., Educational Ideologies, Santa Monica Goodyear Publishing Co., Inc., 1981, pp. 171~172.

고려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대 民主主義 시대에서는 신분의 구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일에 종사하며, 일을 통한 진정한 人間의 成長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일의 교육적 가치를 고려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현대 學校教育에서 일의 교육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民主主義 社會에서는 봉건사회와는 달리 육체노동, 상업, 사회에 구체적 봉사를 하는 일들의 사회적 가치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 둘째, 資本主義 經濟體制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학교가 産業社會의 특징과 문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 셋째, 산업발전에 따라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는 일의 과학적, 사회적 기초를 이해하는 일이 교육의 과제로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점. 넷째, 産業發展의 기초가 되는 과학적 지식은 그 성격상 실험에 의존하여 검증되므로, 生産性을 추구하는 産業現場보다는 지적 관심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학교의 실험실에서 보다 생생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學習心理學이 발전함에 따라, 人間의 마음은 무엇을 탐색하고 해보는 과정에서 성장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이다⁵⁾.

勞作의 교육적 가치는 인간에 있어서 삶의 이미를 보다 풍부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Dewey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⁶⁾. 現代生活에서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계속 증가된다는 측면에서, 교육을 통하여 과학적 내용과 그 사회적 가치를 알려줄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 학교에서는 일을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의 내용 자체를 위하여 하도록 할 수 있다. 일 자체의 의미가 아닌, 그 밖의 외적 관계나 임금 획득의 압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일은 내재적으로 가치있는 경험의 양식을 제공한다. 학교에서의 作業活動은 참으로 자유교육적 효과를 가진다.

19세기 들어서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정착과 국민 교육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받게 되었고, 勞働을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가 검토되면서 勞作教育은 본격적으로 教育思想家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노작교육의 가치를 주장한 19세기의 대표적인 사상가로서 페스탈로찌(J. F. Pestalozzi), 오웬(R. Owen), 마르크스(K. Marx) 등을 들 수 있다. 흔히 노작교육의 개척자라고 불리우는 페스탈로찌는 머리, 가슴, 손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教育目的으로 설정하고, 고아와 빈민의 자녀들에게 실생활과 관련된 勞作教育의 실시를 주장하였고, 또한 이를 실체로 실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논의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勞作의 意義와 性格을 밝히고, 勞作教

5) 이홍우(역), 민주주의와 교육, J.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서울: 교육과학사. 1987, pp. 475~477.

6) 이홍우(역), 상계서, pp. 315~316.

育 思想의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勞作教育의 價値를 고찰하므로써,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소홀히 인식되고 있는 勞作教育의 앞날에 새로운 시사점을 찾고자 하려는 것이다.

II. 勞作教育의 性格

勞作教育은 全人教育이나 人間教育 등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全人教育이나 人間教育 등은 어떤 구체적인 教育課程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교육과정이나 단계 사이에 그것을 실시할 때 實現해야 할 教育原理를 지칭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勞作教育은 다른 教育課程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교육적 가치를 지닌 教育課程일 수 있다. 勞作教育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해명하려면 먼저 勞作의 의의와 성격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勞作의 意義

勞作을 뜻하는 말로서 독일어의 arbeiten의 명사형인 Arbeit란 단어가 있다. 이 Arbeit란 단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원어발음 그대로 흔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낯선 용어는 아니다.

이 Arbeit의 Arb는 상속, 예속, 머슴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 머슴이나 시종의 勞役이나 賦役 등 힘든 일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 또한 노역이나 부역 등 힘든 일은 주로 人間活動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農業分野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Arbeit의 본래 의미는 머슴이나 시종에게 부과되었던 농업상의 힘든 일(Knechtsarbeit)을 뜻한다. 이것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있어서도 오늘날의 Work에 해당하는 단어 Ponos가 힘든 일, 피곤한 일을 뜻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힘든 일을 뜻하는 Arbeit가 漁業이나 手工業 등에 확산되면서 手工的 勞作(Handarbeit), 身體的 勞作(Körperliche Arbeit), 技術的 勞作(Technische Arbeit) 등으로 쓰여지게 되었다.

그 이후 18세기 들어서 소위 新人文主義者에 속하는 철학자나 시인, 특히 칸트(I. K. Kant, 1724~1804), 레싱(G. E. Lessing, 1729~1781) 시대에 있어서는 肉體的 勞作뿐만 아니라 精神的 勞作까지도 이 Arbeit란 단어를 사용하여 頭腦的 勞作(Kopfarbeit), 學問的 勞作(Gelehrt Arbeit), 著述的 勞作(Bucher Arbeit), 精神的 勞作(Geistige Arbeit) 등의 용어가 흔히 등장하게 되었다⁷⁾

‘勞作’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사용되지는 않고, 오히려 일상적으로는 ‘勞作’보다는 ‘일’이라는 말이 훨씬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이 ‘일’이라는 말은 영어의 Work란 뜻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일’이라는 말에는 ① 종사하는 직업의 의

7) 李載元, 勞作의 意義와 그 教育的 價値에 관한 小考, 대한공업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1991. pp. 1~9.

미, ② 말은 바 직분의 의미, ③ 노력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作業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일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勞作教育은 ①이나 ②의 의미보다는 ③의 의미에서 일의 교육적 가치를 가르치는 教育課程을 말한다⁸⁾.

노력하여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創作作業의 의미로서의 일을 노작이라고 할 때, 노작은 놀이와 다르다. 물론 놀이 중에도 작업을 요하는 놀이가 있지만 작업과는 전혀 무관한 놀이도 있다. 그래서 '勞作'과 '勞動'이라는 말은 가끔 서로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勞作과 勞動은 다음 세가지 점에서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노동의 결과 생산한 것은 經濟的 商品價値가 있어야 하나, 노작의 결과 만들어 낸 것은 반드시 社會的 生産物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이다. 둘째, 노동은 결과에 집착하는 것인데 비하여, 노작은 과정을 결과보다 더욱 중요시하는 活動이다. 노작의 결과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나, 실령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작업과정에서 일의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의미를 자각하게 됐다면 그것으로도 노작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셋째, 노동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疎外될 가능성이 많지만, 노작에서는 소외 가능성이 노동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勞作教育의 思想家요 實踐家인 케르첸슈타이너(G. Kerschensteiner, 1854-1932)에 의하면, 勞作은 sachlich 측면이 강조된 自我의 表現行爲라고 하는데, 이 sachlich는 事實的, 卽物的, 對象的, 客觀的인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또한 精神的, 意志的, 自發的, 自律的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勞作活動을 통하여 비로서 인간의 全人的 發達, 즉 人間陶冶를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통적·권위주의적 교육, 서적중심 교육, 암기위주 교육, 지식 일변도의 교육이 勞作을 통하여 혁신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⁹⁾.

오스트리아의 教育學者로서 勞作教育學(Arbeitspädagogik)의 저자인 버거(Burger)는 노작을 협의로는 신체적, 手工的 自己活動이라 하였고, 광의로는 정신적, 신체적 自己活動이라고 하였다. 협의의 身體的 勞作을 외면적으로 관찰한다면 개개 행위의 總和이며, 이 행동은 일정한 의도에 따라 이루어 지는 四肢, 특히 손의 운동이며 의식적 행동인 이상 그 心的原因으로서 의지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意志行爲에 있어서는 제1차 동기에 의하여 行動이 결정되고, 제2차 동기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된다. 제2차 동기에는 目的動機가 가장 중요하다. 이와 같이 手工的 勞作의 근원에는 의지가 깔려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버거는 勞作過程을¹⁰⁾

- ① 勞作目標를 의식하는 表象的 態度
- ② 勞作目標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숙고하는 批判的 態度

8) 김기민, 전계서.

9) 李載元, 전계서.

10) 문형만(역), 교육자론, 세영사, 1985, p. 188.

③ 勞作目標을 달성하고자 하는 情意的 態度

등 3요소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모든 手工的 勞作은 정신적 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노작은 결국 정신적이면서 신체적인 것이라고 하여 廣義의 勞作, 즉 自己活動으로서의 노작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教育的 勞作은¹¹⁾

① 정신적·신체적 활동이며, ② 이 활동은 달성되어야 할 목표에 따라 지배되며, ③ 目標達成의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힘의 소비를 요하며, ④ 정신적·신체적 활동의 최종 결과로서 외계의 변화를 일으키며, ⑤ 외계의 변화와 더불어 창조하는 財貨는 그 자체로서 金錢의 價値를 갖지 않더라도 생산에 들인 힘의 발전은 교육적으로 충분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 경제상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셸러(Scheler)에 의하면 활동이 이념보다 생산에 직결되는 경우를 勞作이라 하여, 활동이 생산과 직결되지 않고 이념에 치우친 경우와 구별하고 있다¹²⁾ 그는 또한 “인간은 외부의 것을 內面化 하고 동시에 내부의 것을 外面化 하고자 하는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¹³⁾, 이것은 手工的 勞作에 의하여 촉각과 근육이 예민해 지므로 교실내에서 實科教授를 통해 수공적 노작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외의 勞作教育 思想家로서 나돌프(P. Natorp, 1854~1924), 가우디히(H. Gaudig, 1860~1932), 큐넬(J. Kuhnel, 1868~1928) 등이 노작의 教育的 重要性을 각각 제창하면서,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노작은 개개인의 意志的 價値實現의 행위이며 精神的·身體的으로 통합된 卽物的·實體的·客觀的·具體的 行爲라고 勞作의 意義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勞作의 意義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勞作이란 새로운 價値創出을 위하여 자기 통제하에 이루어 지는 실제적 人間活動을 말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價値創出은 노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 통제는 사회적·도덕적 규범을 의미하며 실제적이란 말은 sachlich 측면, 즉 사실적, 즉물적, 대상적, 객관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人間活動은 정신적 활동, 신체적 활동의 개별적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통합된 精神的·身體的 活動의 개념을 의미한다.

2. 勞作教育의 性格

勞作의 意義와 더불어, 勞作教育은 어떤 성격을 갖는 教育課程인가를 탐구하는 데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노작이 勞作教

11) 문형단(역), 상계서, p. 186.

12) Scheler, M., Zur Soziologie und Weltanschauungslehre, Arbeit und Ethik, 1924, pp. 34~45.

13) 小林澄兄, 勞作教育思想, 玉川大學出版部, 1971, p. 136.

育의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이 교육내용으로 포함되려면 教育的 觀點에서 반드시 가치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노작 중에서도 교육적 관점에서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勞作教育의 성격은 노작의 의의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작의 의의를 교육적인 측면과 관련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노작이 교육받는 개인의 경험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점을 유의하면서 勞作教育의 성격을 규정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勞作教育은 인간의 精神的 健康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이루어 지는 육체적 활동이다. 사실 인간에 있어서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은 무의미하거나 별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교육은 정신적 건강의 여러 측면 중에서 특정 측면의 향상에 치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식교육은 지적 측면, 미술교육은 정서적 측면, 윤리교육은 윤리적 측면의 발달에 각각 강조점을 부여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勞作教育의 경우에도 정신적 건강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특정한 측면에 강조점을 둘 수 있다. 그렇지만 노작교육이 정신건강 중에서 어떠한 측면의 향상을 강조하는가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설령 그렇더라도 노작교육에서 추구하는 精神健康의 향상은 다른 교육과정에 비교할 때 더욱 개방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노작의 경우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자유로운 조작과 자율적 선택의 폭이 비교적 넓은 활동이기 때문이다. 노작교육에 관한 활동으로는 꽃과 채소 가꾸기, 새나 동물 기르기, 실내 장식하기, 음식 만들기, 옷 만들기, 목공작 하기, 그림 그리기, 작곡 하기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勞作教育은 社會生活을 반영하는 활동에 참여하되, 작업하여 무엇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精神健康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무엇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절차가 없는 활동은 노작교육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음악에서 피아노 다루기, 야유회, 연극이나 영화 감상, 문학 작품의 감상 등은 제외된다. 또한 무엇을 만들어내는 놀이는 놀이의 성격상 노작교육이라 보기에는 좀 곤란한 것이다. 다만 작업으로서의 놀이는 노작교육이 전개되기 이전 단계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노작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초보적인 노작교육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셋째, 勞作教育은 일정한 절차나 기술에 익숙하게 하면서도 개인적인 變貌나 집단적인 協同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활동이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똑같은 모습일 수 없듯이 인간의 작업 또한 똑같은 것일 수 없으며, 함께 작업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마련이다. 또한 효율적인 작업의 遂行過程에서는 일의 절차와 규칙이 있어야 되며, 일정한 기술적 숙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정밀하든 조잡하든 간에 그 나름대로 특유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소질과 관점이 내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교육도 개인적인 變容이나 집단

적인 협동의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환영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노작 교육은 藝術教育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勞作教育 思想의 歷史的 背景

서양에서 노작교육의 중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 즉 르네상스 이후로 볼 수 있다. 資本主義 체제가 확립되기 전인 18세기까지 제도적인 형식교육에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노작교육의 가치가 별로 인정되지 못하였고,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학교밖에서 作業에 참여하여 學習效果를 높이는 정도의 인식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에 들어서 國家主義, 自由主義, 資本主義 및 産業化라는 특징을 배경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인 環境이 급격하게 변화되고¹⁴⁾, 公教育 체제가 확립되면서 국가적 필요나 民主主義 이념에 따라 다수 인구를 집하는 노동자 계층의 자녀들이 學校教育의 주요한 대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렇게 勞動者 계층이 학교교육의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노작교육 사상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 19세기 이전의 勞作教育 思想

모어(Thomas More, 1478~1535)

理想社會의 건설을 동경한 사회 空想的 社會主義者인 모어는 그의 저서 유토피아(Utopia, 1516)¹⁵⁾에서 노동의 교육적 필요성을 말하였다. 당시의 학교는 일반학습과 함께 농업을 중심으로 한 실습을 병용하여 배우고 옷감을 짜는 일, 목공, 석공, 철공 등의 기술을 익히는 주로 실용적 측면이 강조된 勞動을 학습내용으로 하였으나, 인문분야가 주류를 이루었던 당시의 학교교육에서 노동을 필수적으로 첨가한 것은 勞動 教育史의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理想社會의 전체 모습을 구성하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의 교육적 가치를 언급할 뿐이었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루터(Martin Luter, 1483~1546)

16세기에 宗教改革을 주도한 루터는 교육과 일의 관련에 대해, 수도원 학교는 감옥과 같고 소년들은 새장에 갇혀 있는 새와 같으며 꽃병에 꽂혀 있는 뿌리없는 나뭇가지와 같다고 하여 자녀들은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學校教育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남자 어린이는 하루에 1~2시간만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집이나 일터에서 특수한 職業的 技術을 배우도록 하되, 그의 취미에 맞는 것을 택하도록 권유하였다. 또한 여자 어린이의

14) Freeman Butts, R., A Cultural History of Educa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47, pp.385~388.

15) 노재봉(역), 유토피아, T. More, Utopia, 서울 : 삼성출판사, 1976, p.122.

경우에는 학교에서 매일 한 시간씩 공부한 후 집에 가서 가사일을 배우도록 권장하였다¹⁶⁾.

기독교적 관점에 입각하여 삶에 있어서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던 그는 일부 신학자들이 일에 대해 취하는 애매한 태도를 직시하고, 세속적인 일 또는 직업에 종교적인 존엄성을 부여하였는데, 하느님의 섭리를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한 신성한 소명이 바로 우리 인간의 職業(Beruf)이라고 주장하므로써, 신의 섭리를 구현하는 일이 성직자의 것으로만 생각했던 社會通念을 극복하고 일반 서민의 세속적인 직업에까지 확대하였다. 따라서 그는 일의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일반교육으로서가 아니라 職業教育으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라베라스(Rabelais, 1483~1553)¹⁷⁾

유토피아적 교육론을 두개의 작품(Gargantura와 Pantagruel)에 나타난 라베라스는 작품속의 주인공 Gargantura와 그의 선생인 Ponocrate의 묘사에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학습시키므로써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을 이해시켜 나갔으며, 식탁 위에 있는 빵, 생선, 과일 등 생활속의 사물을 학습내용의 자료로 활용하여 싫어하는 교재를 좋아하도록 이끌고 대장간, 목공소, 금은 세공, 織造 등 수공업 현장을 자주 찾아 견학하여 일의 세계를 이해하고 生産體系, 社會經濟 등을 학습하게 하였다.

코메니우스(Johan Amos Comenius, 1592~1670)

코메니우스는 코멘스키(Kormensky)라고도 불리우며, 그에 의해 근대적 의미의 勞作教育觀이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지식습득의 수단, 경제적 근로심 함양의 방법 그리고 신체건강을 위한 수단으로 手工, 工作, 農業 등 勤勞的 勞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¹⁸⁾, 학교 제도론을 제시하여 인간의 정신발달을 유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로 나누어 그 단계별로 母親學校(1~6세, 제 1기), 母國語 學校(6~12세, 제 2기), 라틴어 학교(12~18세, 제 3기), 大學(18세 이후, 제 4기)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大學을 제외한 각 단계의 학교에서는 완구, 각종 공구 등을 갖추어 놓고 꾸미기, 다듬기 등의 勞作活動을 통하여 사물을 인식하게 하고 기계의 원리, 농업기술 등도 다른 교과와 더불어 가르친다. 母國語 學校에서는 하루에 4시간(오전과 오후에 각각 2시간) 이상 수업을 하지 않으며, 나머지 시간은 가사를 돕거나 건전한 여가시간으로 활용한다. 어린이들에게는 勞作活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내면적인 것을 노작활동을 통하여 외면적으로 표현하려 하기 때문이다. 목수는 徒弟에게 지붕 트라스를 만들게 하기 전에 대패 잡는 법, 대패날 가는 법, 끌구멍 파는 법을 가르치고, 화가는

16) 한기언, 서양교육사, 박영사, 1988, pp. 62~80.

17) 李載元, 전계서.

18) 小書重直, 勞作教育, 玉川大學出版部, 1940, pp. 101~103.

그 제자에게 초상화를 그리게 하기 전에 색을 배합하는 법, 붓을 잡는 법, 윤곽을 나타내는 법 등을 먼저 가르친다. 徒弟制度에서의 기술전수 방법을 분석하여 이를 유추적으로 교수방법의 개선에 활용하였다.

로크(John Locke, 1632~1704)

17세기에 로크는 紳士의 양성을 목적으로 서술한 「교육에 관한 몇 가지 고찰」이라는 책에서 비록 신사의 본분에는 맞지 않지만, 신사도 생산적인 일을 배워야 함을 주장하면서, 신사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하는 교과들은 마냥 앉아서 하는 것들인데 여기에 요청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紳士(gentleman) 계급의 내면적, 사회적 자각 및 신체의 鍛鍊 의미에서 중류 이상의 청년들의 교육에 육체적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¹⁹⁾. 또한 신사계급의 자녀도 自作農民의 자녀와 같이 자연의 순리에 익숙하도록 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엄격한 훈육을, 체벌보다는 이성애 호소하며, 규율보다는 시범에 의해서 자율적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생산적 노작경험이 人格形成과 趣味陶冶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고, 빈민자녀를 위한 勞作學校案을 제시하여 3-14세의 아이들을 입학시켜 宗教教育和 勞作教育을 시키도록 하였다.

루소(J. J. Rousseau, 1712~1778)

루소는 에밀(Emile, 1762)이라는 책에서, 勞動은 사회적 인간의 필수적 의무이며, 소년기에는 누구나 여러 가지 노동을 배워야 하고 이 속에서 다양한 것을 관찰하고 배우며, 자연과의 교섭이 이루어지고 이로써 人間陶冶가 시작된다고 했다²⁰⁾. 또한 인간이 자연상태나 은둔상태인 경우와는 달리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직업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직업적 기술은 많은 사람들의 협동을 필요로 하며, 그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생김과 동시에 流通과 分業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직업적인 기술을 배우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을 도둑이라고 규정하면서, 농사짓는 것과 같이 육체를 움직여 땀을 흘리는 기술이 진정한 기술이며 이러한 기술을 배우도록 권하였다. 그러나 이 기술은 생계를 유지한다거나 재산을 모으는데 쓰일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高揚시키며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¹⁾. 이와 관련하여, 그렇다면 기술을 어떻게 가르쳐야 이러한 특성이 길러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루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어린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관념들은 그들의 정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해야 한다. 우선 우리 人間에게 유용한 것을 만들어 주는 공업과 기계적인 기술들을 익히도록 그들의 주의력을 모두 돌려 놓아야 한다. 이 작업장에서 저 작업장으로 어린이들을

19) 小書重直, 전계서.

20) 안인회, 루소의 교육론: 에밀, 서울: 양서원, 1990, p. 165.

21) 안인회, 상계서, p. 166.

데리고 다니며 그 동안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 직접 일하도록 해야지, 그저 견학만 하는 따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일 전부 또는 적어도 거기에서 보는 모든 것의 상태를 완전히 알고난 다음이 아니고는 거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라. 모든 곳에서 어린이의 모범이 되도록 하라. 어린이를 훌륭한 匠人이 되도록 할려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 방문하는 곳의 徒弟가 되기를 즐겨 하라. 그렇게 되면 한 시간의 작업이 하루 종일 설명을 듣고 알게 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우게 될것이다.

이와 같이 루소는 「에밀」에서 勞作教育에 대하여 체계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주 관심은 자연에 따르는 교육이며, 말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교육이었다. 그가 노작교육의 가치를 언급한 것은 결국 사물과 직접 대면하는 교육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루소에 있어서 노작교육은 로크의 경우와는 달리 모든 사람이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한 배워야 하며, 인간적인 특성을 길러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작교육은 사회계층이나 성차에 구분 없이 어린이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 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手工의 勞作教育을 통하여 가능하므로 농부와 같이 일하고 철학자 같이 思考하는 습성을 길러주어 몸과 마음을 서로 통합시키는 교육적 비결은 勞作活動으로서 바로 사교의 훈련수단이 된다는 루소의 확신은 그 후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전기가 되었다.

2. 19세기 勞作教育 思想

1) 페스탈로찌의 勞作教育 思想

정열적 教育實踐家요 위대한 教育思想家인 페스탈로찌(J. H. Pestalozzi, 1746~1827)가 살았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의 스위스는 매뉴팩처(manufacture, 工場制 手工業) 단계에 들어서 있었다. 이 단계는 곧 대중을 구성하는 주요 계층이 봉건적인 농민에서 근대적인 賃金 勞働者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말한다²²⁾. 농민들은 전통적인 農民生活이 붕괴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생활에 적응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빈민이 생겨나고 사회는 전통적 가치가 정립되지 않아 도덕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페스탈로찌의 勞作教育論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의 대중들이 새로운 經濟體制에 적용할 수 있는 技術教育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을 실현하기 위한 초보적인 일반교육을 의미한다.

한편 페스탈로찌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自然的 段階, 社會的 段階, 道德的 段階를 순차적으로 밟아 발전해 나가는데, 이 세가지 存在樣式 중 道德的 段階가 가장 이상적인

22) 제3세계 문화연구소 한울림(역), Kruspkaya(저), 크루프스카야의 국민교육론, 서울 : 돌베개, 1989, pp. 35~36.

것으로 이것은 교육을 통하여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 단계에 도달하려고 헌신하는 人間育成을 그의 교육목표로 삼고 形式陶冶理論을 제시하여, 모든 교육의 일반목표인 “基礎陶冶의 理念”으로 설명하였다. 이 기초도야의 이념이란 손(몸)·머리·가슴(마음) 또는 기술적·지적·도덕적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되, 복잡한 내용을 陶冶의 기초가 되는 단순한 내용으로 나누어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집을 만드는 기술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경우, 먼저 치고, 두드리고, 돌리고, 올리고, 밟고, 쌓고, 바르는 등의 동작을 가르친다. 그 다음 벽돌을 쌓고, 서까래를 올리고, 창문을 만드는 과정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마지막으로 이를 조합하여 집을 만들게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복잡한 교육내용을 그 구성요소로 나누어 세분하고 순차적으로 가르치면 그 교육내용을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된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形式陶冶理論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²³⁾.

페스타로찌에 있어서 勞作教育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시피 기술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 능력의 함양은 지적·도덕적 능력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그에 의하면, “소위 이 시대에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 이 점을 모르고 있다. 그 점은 바로 굳건하고 꾸준하고 순수한 勞動이 인간의 참된 지혜와 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²⁴⁾. 일과 作業이 智慧와 德性의 계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해 보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인간의 본능적 충동은 認識이나 判斷의 습관 靜止된 것이 아니라 動的이며 활동적이라고 볼 수 있고, 동적인 인간의 충동은 삶이라는 또 다른 動的對象을 필연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그리하여 삶이 인간을 도야한다는 것은 적어도 페스타로찌에 있어서는 동적인 인간 본연의 충동을 발현하는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²⁵⁾.

페스타로찌는 그의 대표적 교육소설 「린하르트와 게르트루트」에서 본별 마을을 무대로 農民生活의 붕괴와 새로운 노동력 형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소설에서 “글뤼피”라는 교사가 “게르트루트”와 “마가렛”이라는 두 여자의 협조로 농민사녀에게 초보적인 교육을 시킨다. 그 교육은 글자나 문장을 읽는 것, 삶에서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 즉 3R's 외에 재봉, 방적기술, 엄격한 규율과 깨끗한 몸가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다²⁶⁾. 그런데 이러한 교육은 적어도 이 소설에서 “아네르”라는 도덕적이며 개몽적인 영주의 후원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하여 페스타로찌는 이 소설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체제를 인정하며, 또한 수공업 단계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공장제

23) Brubacher, J. S., A History of the Problems of Education, N. Y. : McGraw-Hill Co., 1966, p. 270.

24) 김정환(역), 페스타로찌의 은자의 황혼 외, 서문문고 033, 서울: 서문당, 1972, p. 70.

25) 김기식(역), 페스타로찌의 백조의 노래 외, 현대사상교양전집 4, 서울: 경지사, 1968, p. 75.

26) 홍순명(역), 린하르트와 게르트루트, J. H. Pestalozzi, Linhart und Gertrud, 서울: 광개토출판사, 1987, pp. 178~181.

수공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의 과정으로 교육을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²⁷⁾ 그의 勞作教育은 이처럼 基礎陶冶의 이념을 실현하는 한가지 중요한 일반교육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技術習得을 위한 職業教育이기도 했다. 즉 그는 노작교육을 농민의 자녀로 하여금 비참한 현실상태에서 벗어나, 資本主義의 초기단계인 매뉴팩처 단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職業技術의 습득으로 묘사하고 있다.

2) 오웬의 勞作教育 思想

근대교육의 사상가요 실천가로 알려진 오웬(Robert Owen, 1771~1858)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주로 영국에서 살았는데, 당시 영국은 産業革命이 급속히 진행되어 工場制 機械工業이 확고히 정착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은 노동자로 직업을 전환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家庭生活이 붕괴되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빈곤과 무지에 허덕이며 도덕적 타락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資本主義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공동체 삶에 헌신하며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人間性을 실현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사회주의적 인간성을 실현하는 한 가지 교육형태로서 勞作教育을 구상하고 실행하였다²⁸⁾.

오웬에 있어서 올바른 성격을 형성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적 힘은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한 개인의 환경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공동체 자체의 실제 생활모습에서 나온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웬은 먼저 New Lanark, New Harmony에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자본주의 사회체제와 격리된 자신의 네 가지 教育方式을 실시하므로써 그의 실천적 노력은 자신의 보고에 의하면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⁹⁾.

바로 이 教育方式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다양하고도 순진무구한 즐거움을 제공해 주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³⁰⁾ (1) 절대로 어린이에게 언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욕이나 벌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정상적인 활동과 육체적인 활동을 교대로 할 수 있게 해준다. (3) 말과 글을 위주로 하는 추상적인 내용의 수업을 피하고 실물, 그림, 지도 등을 제시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에 몰두할 수 있게 한다. (4) 음악, 무용, 군사훈련, 기술 등 실제적 지식들을 가르쳐 주되, 개인적으로 하거나 너무 세밀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아니라 협동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27) 임상희(역), 류구용(저), 교육사상사, 서울: 백산서당, 1985, pp.97~98.

28) Owen, R., A New View of Society and Other Writings, London: Everymans Library, 1972, pp.40~42.

29) Silver, H., Robert Owen on Education,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69, pp.61~68.

30) Morton, A. L., The Life and Ideas of Robert Owen, N. Y.: International Publishers, 1969, pp.130~137.

오웬의 노작교육은 훌륭한 성격의 형성에 기여하는 이 네가지 教育方式 중 2)와 4)에 관련된 것으로서 협동하여 수행되는 肉體的 活動을 말하는데, 이러한 그의 노작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정 연령 이상의 어린이는 누구나 사회적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그가 관심을 가진 대상은 노동자 계층의 자녀였지만, 모든 어린이가 12세 이상 되었을 때 사회적 노동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11세까지의 어린이에게는 사회적 노동이 힘에 부족하며 지적 호기심에 입각하여 즐겁고 자유롭게 사물을 탐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³¹⁾. 둘째, 그의 노작교육은 공동체내의 작업장이나 공장에서 실제로 작업을 해보는 육체적 활동으로서, 밤에는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낮에는 공동체에서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노작교육이 제시되어 있다. 이 점에서 오웬의 勞作教育은 페스탈로찌와는 달리, 학교교육의 교육과정은 아니다³²⁾. 그러나 공동체의 모든 어린이가 社會的 勞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노작교육은 미세하게 분화된 형태가 아니라 협동적인 작업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이다. 協同的 作業은 (1) 분업화된 생산형태보다 더 풍부하게 물자를 생산해내며, (2)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협동과 조화를 지향하는 인간성을 형성시켜주는 이점이 있다³³⁾.

결국 오웬의 노작교육은 작업장이나 공장에서 실시되는 협동작업으로,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는 학습과 함께 수행되는데, 서적중심의 지식을 가르치는 精神的 活動과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肉體的 活動을 병행 실시하므로써 학습효과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3) 마르크스의 勞作教育 思想

경제학자요 사회주의 운동자인 마르크스(K. H. Marx, 1818~1883)는 19세기 독일에서 태어나 프랑스, 벨기에를 거쳐 주로 영국에서 저술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당시 유럽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하면서 빈부의 격차,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 국가의 노동운동 탄압 등 사회적 모순이 첨예한 상태의 시기였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資本主義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인 私有財產制度를 폐기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인간 즉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로서 勞作教育을 구상하였다. 물론 마르크스가 勞動(Arbeit)과 實踐(Praxis)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한 바 없다. 그

31) Owen, R., 상계서, pp. 283~284.

32) 김영우, "오웬", 교육사연구회(편), 교육사상가평전: 서양편, 서울: 비봉출판사, 1987, p. 299.

33) Owen, R., 전계서, p. 246.

러나 그가 추구한 社會的 勞動의 본질로부터 노동과 교육의 결합에 반영된 勞作教育 思想을 확인할 수 있다³⁴⁾.

마르크스의 勞作教育은, (1) 보수를 지급하는 협동적인 生産勞動과 (2) 여러 가지 도구의 사용과 자연과학적 지식의 결합인 綜合技術教育의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난다³⁵⁾.

우선 生産勞動이 보수가 지급되는 육체적 노동이라는 것은 이론 중심의 학업을 보다 잘 성취할 수 있는 기분 전환으로 작용하며, 일한 자만이 먹을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웬이 12세부터 생산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과는 달리 9세부터 생산노동에 참여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생산노동이 協同的 作業이어야 한다는 것은 공동체적 삶에 헌신하는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협동적인 노동은 인간을 이타적인 존재로 발달시킬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은 될 수 있다. 사실 협동적인 작업에 종사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타적인 존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협동적인 작업이 꼭 노동이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이 적어도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협동적인 작업의 핵심에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집단노동을 어린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낮은 生産性을 보충하려는 경제적 측면도 고려한 것이지만 공동체 삶에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협동적인 生産勞動은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 능력의 신장과 아울러 공동체의 삶에 헌신할 수 있는 道德的 人格形成에 기여한다.

綜合技術教育(Polytechnical Education)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특히 강조되는 교육방식으로서, 도구, 기계 등의 사용방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과정 전반의 기술공학적 원리를 파악하는 것을 포함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綜合技術教育은 여러 분야의 자연과학과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실제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綜合技術教育은 모든 사람이 사회 전반의 생산 과정을 계획하고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하여, 보다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가 정착될 수 있는 근거로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綜合技術教育의 실시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노동자 계급이 투쟁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 역설하고, 노동자들의 집단 노력으로 이를 쟁취할 것을 주장하였다³⁶⁾.

이러한 마르크스의 綜合技術教育에 대한 관점에 관하여 그 후 추종자들은 교육 전반을 규제하는 원리로 해석하였지만, 적어도 마르크스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의 教育課程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綜合技術教育은 기술공학적 원리와 기능을 통합해 주는 교육과정이란 점에서, 그리고 生産勞動은 인간경험의 총체성과 관련된다고 규정

34) 임상희(역), 전게서, p.185.

35) 김창호, 마르크스의 인간관, 동녘, 1982, pp.72~90.

36) Castles, S. and W. Wüstenberg, The Future of Education London: Plato Press, 1979, p. 38.

한 점에서 볼 때, 마르크스는 노작교육의 가치를 主知主義 教育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제시했다.

3. 20세기 勞作教育 思想

1) 케르셴슈타이너의 勞作教育 思想

독일에서 1919년에 바이마르 공화국(Weimar 共和國)이 성립되기까지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주도하던 이 시기는 자본주의 성숙에 따른 혼란과 새 시대에 대한 갈망이 混在했던 때로서, 제국주의 정책, 노동자 보호입법 채택, 騷擾 방지법에 의한 노동운동 및 사회주의 운동의 탄압 등이 공존하고 있었다³⁷⁾.

케르셴슈타이너(G. Kerschensteiner, 1854~1931)는 자신이 살던 독일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교육사상은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적 이해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는 피교육자의 精神的 實在에 교육과정의 기초를 두고 교육과정의 기본원칙을 설정하였으며, 피교육자를 도덕적이고 자율적인 인격으로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교육사상은 크게 公民教育論, 勞作教育論, 性格教育論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³⁸⁾.

케르셴슈타이너의 이러한 세가지 교육론은 서로 긴밀한 연관속에서 진행된다. 노작교육을 통하여 직업적으로 유능한 인간을 만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간을 도덕화하고, 또한 국가가 이를 통하여 도덕화한다는 것이다³⁹⁾. 즉 人間形成은 직업교육을 통하여 바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형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각 개인에게 적합한 노작활동을 의미한다. 인간은 직업에 종사하므로써 자기 중심적 입장을 떠나 타인 중심적 입장에 이르며, 도덕적인 힘을 체험하고, 정신적으로 향상되게 마련이므로 人格形成에의 길은 가능한 한 각자의 內的性向과 일치된 노작을 통해야 할 것이다. 개개의 피교육자는 직업교육에 의하여 그들이 소속한 사회의 도덕화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동시에 이타적인 선의와 정신적 용기, 그리고 자기 책임의 의식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일반의 목적은 도덕적이고 자율적인 인격형성과 국가관의 확립 및 국가적 과제에 관한 이해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체제로서, 피교육자가 노작을 통하여 自治精神을 체득하고 道德的 自己規定을 경험할 수 있으며, 헌신이나 공동체 의식 및 봉사정신을 발달시키고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共同生活을 영위하여 가는 의식을 기를 수 있는 勞作學校的 教育체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公民教育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타나는 개념이 노작 공동체의 개념이다. 즉 학교에서는 먼저 직업교육이나 직업교육에 대한 준비로서 職業陶冶가 이루어져야 하

37) 홍치모, 독일 통일과 제1차 세계대전, 신지사, 1974, pp.295~302.

38) 문형만, G. Kerschensteiner의 교육사상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8, pp.1~3.

39) 高野兼吉, 케르셴슈타이너의 理論, 東京ベリかん社, 1970, p.119.

고⁴⁰⁾, 다음으로 職業教育을 도덕화하여 이 속에서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공동의 과제를 共同勞作을 통해 함께 달성하므로써 아동들이 학교는 물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도덕화 한다는 의미의 공민교육 방법원리로 노작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케르센슈타이너는 당시 지식 중심의 학교 상황을 비판하면서 아동들은 가정, 야외 등 생활의 현장 어디에서나 작업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일 외에 손으로 하는 각종 共同作業 속에서 도덕적 원리와 함께 창조의 원리를 터득하게 된다고 하였다⁴¹⁾. 따라서 유용한 공민을 교육하는 것은 공립학교의 목적이고 교육일반의 목적이며, 그것은 바로 최고의 倫理的 目標라고 하였다.

2) 듀이의 勞作教育 思想

듀이(J. Dewey, 1859~1952)는 19세기 중엽 미국에서 태어나 20세기 중엽까지 거의 1세기에 걸친 생애를 통해 다양하고 급격한 文化的 變化의 시기에 대응하여 교육에 관한 포괄적인 理論體系를 제시한 사상가로써, 미국의 학교교육이 일상적 삶의 경험과 괴리되어 있는 점을 비판하고 양자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노작교육은 교육적 경험과 일상적 경험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도출된 하나의 教育活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사회적 生活事態를 재현하는 인간의 능동적 작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제시되며, 자유롭고 내재적인 동기에 입각해서 이루어 진다. 이러한 능동적 작업으로서의 노작교육은 놀이와 함께 교육적 경험을 구성하는 두가지 핵심요소 중 하나이면서, 또한 일반교육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듀이는 産業教育의 이론과 실제에서 근시안적이고 공리적인 상황에 반대하였다. 반대로 아동의 지식이 행동하기 시작하면, 산업교육은 器具와 재료를 탐구하고 이용하며 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타고난 성향에 만족하도록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⁴²⁾. 그런데 듀이는 (1) 이론적 사고와 실제적 사고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편견을 배격하고, (2) 인간경험의 성격을 총체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3) 인간경험의 성장은 능동적 작업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지력을 발휘하는 데서 이루어 진다고 주장하였는데⁴³⁾, 이는 노작교육이 궁극적으로 인간경험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통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듀이가 저술한 학교와 사회(The School and Society)에서, 그는 학교의 기능에 대한

40) 전일균, 케르센슈타이너의 노작교육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p. 14~37.

41) 전일균, 상계서.

42) 정모근, 노작교육의 성격규명과 효과적 운영방안, 실과교육연구, 제7집, 1993, p. 47(재인용).

43) 이론회, 교육정의론, 서울: 고려원, 1992, pp. 236~241.

물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⁴⁴⁾. 첫째, 학교는 또 하나의 가정⁴⁵⁾이 되어, 그 속에서 협동 사회적 감각과 共同善의 추구 감각이 길러져야 한다. 둘째, 학교는 학생의 실험과 작업을 권장하고 실제적 활동과 수공적 기능을 교과와 관련시켜서 제공해야 한다. 셋째, 학교는 사회의 모든 활동을 지니고 있는 소형사회(miniature community)이자, 그런 활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胚胎社會(embryonic society) 이어야 한다. 넷째, 학교는 어느 특정의 교과를 배우는 곳이 아니고, 숲·농장·요리실 등은 생활의 마당에서 삶의 방식과 학습의 방법을 배우는 곳이다.

이러한 듀이 教育理論의 관점에서 볼때, 勞作教育은 사회적 생활사태를 재현하여 인간의 능동적 작업활동에 참여하는 반성적 사고, 즉 지력이 발휘되는 문제사태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경험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그의 노작교육은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教育課程이면서도 학교교육의 교육과정 각각에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 전개되므로써, 학교교육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주지주의 교육의 보완적 측면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勞作教育의 價値

앞에서 검토한 노작교육의 성격과 노작교육 사상의 역사적 배경 등을 토대로 하여 노작교육의 가치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勞作教育은 知的發達에 도움을 준다.

교육은 우선 학습자의 知的發達에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인 가르치는 행위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배우게 이끄는 활동을 말한다. 즉 교육의 중요한 활동인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제대로 배워야만 지적발달에 도움을 주는 教育活動으로 성립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두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첫째는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치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둘째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교육내용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교육에서 핵심적인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에 대하여 오우크쇼트(Oakeshott)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우선 첫째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⁴⁵⁾.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상속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류가 쌓아온 업적이라는 遺産이다. 이 유산은 감정, 정서, 상상, 전망, 사고, 신념, 관념, 이해, 지적·실제적인 일, 인간관계, 조직, 행동규범과 격언, 절차, 의식, 기술, 예술작품, 사

44) 金丁煥, 教育哲學, 서울: 박영사, 1987, pp.130~131.

45) Oakeshott, M., "Learning and Teaching", R. S. Peters(ed.), The Concept of Education, London: RPK, 1967, p.158.

적, 악보, 도구, 공예품 등 간단히 말하면 달타이가 말한 精神世界를 말한다. 이 정신세계의 구성요소는 물리적인 대상과 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념들을 말한다. 이것은 사물의 세계가 아니라 사실의 세계이다. 즉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어야 하는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로지 배움에 의해서만 이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세계를 소유할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다. ……이 세계를 우리의 공통적 文化遺産이라 하는 이유는 배움에 의하여 이 세계에 들어갈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人間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인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될려면 公的인 文化遺産에 入門되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인 문화유산은 사물이 아니고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야 할 대상이다. 교육에서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워야 할 내용은 인류의 공적인 문화유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⁴⁶⁾. 둘째 문제에 관하여 오우크쉴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학교”라는 개념의 특징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게 되는 주위세계, 현재의 관심사 그리고 학습자의 주의를 끄는 세계의 현실적 요구들로부터 초연하다는 점이다. 이 초연함이란 학교의 어원인 “Schole”라는 말의 본래 의미를 뜻한다. 학교는 도덕적·지적 유산을 접하는, 현실세계와는 동떨어진 곳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현재의 세상사나 관심에서 볼 때 별로 쓸모없는 것들이다. 사실 학교에서 배운 많은 것들이 현실의 세계에서는 잊어버리게 되고, 무시되고, 세속화되고, 생략되고, 다만 단편적으로만 현실세계에서 활용될 뿐이다. ……이와 같은 학교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전에는 한번도 꿈꾸지 못했던 탁월함과 열망들을 느끼게 해주며, 활발하게 이끌어 준다⁴⁷⁾.

이러한 오우크쉴의 말처럼, 文化遺産에의 입문을 현실세계와 초연한 상황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교육은 번덕스러운 열정이나 필요에 의해 우연히 시작될 경우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인류의 문화유산에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입문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가르침과 배움의 활동은 현실세계와 초연하게 분리되어야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듀이는 오우크쉴의 견해와는 달리 學校教育에서의 가르침은 학생들의 실제적 경험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授業方法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오류는 학생들에게 이미 경험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 이와는 달리,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고를 일으키는 첫 단계

46) 김기민, 전계서, p. 83.

47) Oakeshott, M., “Education : The engagement and its frustration”, R. F. Dearden, P. H. Hirst, R. S. Peters (eds.),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reason, London : RPK, 1972, p. 19.

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놀이에서나 일에서나, 개인은 자기 자신의 총동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무슨 일인가를 해 보아야 하며,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의 에너지와 주어진 자료의 에너지 사이의 相互作用을 주시해야 한다. 아이가 처음에 나무 토막을 쌓을 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며,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낯선 물체로 실험을 할 때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이것이다⁴⁸⁾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文化遺産이 '성격상' 현실세계의 관심이나 필요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오우크쉴의 관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文化遺産을 가르치는 방식이 학습자의 現實經驗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 어린이들이 실제적 경험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공적유산인 인류의 경험을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궁리할 때 쉽게 문화유산에 입문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실제적 활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인 작업에 있어서도 책을 읽고 이해할 때보다 달이나 글, 도표 등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해 볼 때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 진다. 역설적인 것 같지만, 공적인 문화유산의 성격이 現實世界의 관심이나 필요와 동떨어진 것을 전달할 때일수록, 그 내용을 학습자의 실제적 경험과 관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⁴⁹⁾. 노작교육은 학교에서 전달할 내용을 학생들의 실제적 경험과 연결시켜주는 교육과정 중 전형적인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듀이는 노작교육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원 가꾸기를 가르치는 이유를 장차 庭園師가 될 사람을 키르기 위해서라든지,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 된다는 데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農事와 栽培가 인간역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현재의 사회조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통로가 된다. 교육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정원 가꾸기는 植物의 성장에 관한 사실, 土壤의 화학적 성질, 햇빛과 공기와 수분의 역할, 식물의 성장에 해로운 동물과 이로온 동물 등등을 알아보는 수단이 된다. 植物學의 초보에서 나오는 내용치고 씨앗의 성장을 돌보는 일과 관련하여 생생하게 배울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할 때, 그 교과는 식물학이라는 이름의 피상한 학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속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土壤, 動物生活, 人間關係 등과도 자연스러운 相關關係를 맺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더 성숙해지면, 정원 가꾸기에 대한 원래의 직접적인 관심과는 무관하게, 科學的 發見을 위하여 예컨대 식물의 發芽와 營養, 열매에 의한 양식 등, 여러가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의도적인 知的探究의 단계로 넘어 갈 것이다⁵⁰⁾.

이와 같은 듀이의 견해는, 勞作教育을 학생들의 知的探究가 더욱 높은 수준의 단계에

48) 이홍우(역), p. 243.

49) 김기민, 전계서, pp. 85~86.

50) 이홍우(역), 전계서, pp. 315~316.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교육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勞作教育 思想家들의 대부분이 거의 공통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이제까지의 서적을 통한 지식중심의 학교교육이 지식을 주입하는 것일뿐 학습자 스스로의 지적발달에 효율적인 것으로 작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勞作教育이아말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배움의 수준을 스스로 生成·發展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이라고 주장한다. 바로 이 점이 주지주의 교육의 보완적 측면에서 노작교육의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2. 勞作教育은 全人的 人間陶冶에 기여한다.

교육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知識이나 技術, 品性 등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하나의 養育한다는 과정을 지적하는데 필요한 말로 쓰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教育”이란 말은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중 한가지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일정한 맥락에서 가치롭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보다 폭넓은 관점이나 안목의 형성과 관련하여 가르치는 것을 일컫는다⁵¹⁾.

교육은 全人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해석하면, 아동의 특정한 능력이나 특성의 신장이 아니라, 여러가지 특성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全人的 관심에서 이루어진다⁵²⁾. 이것은 곧 교육이 어떤 분야에 우수한 전문가를 育成한다는 데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우리 인간의 생활에 다양한 분야를 음미하고 폭 넓게 마음을 계발하는데 더욱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이 知·德·體의 조화로운 발달 또는 全人을 지향한다는 것은 생활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험을 균형있게 발달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교육에서 추구해야할 경험 즉 教育的 經驗은 일상적 경험을 포섭하되, 그것들을 서로 통합시켜 주는 성격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일상적 생활경험에서 쉽게 간과되기 쉬운 總體性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경험이 총체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작교육의 가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책상을 만드는 활동을 두고 생각해 보자. 똑 같이 책상을 만드는 활동이지만 학교에서 실과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책상을 만드는 일과, 공장에서 책상을 만드는 일은 그 일의 성격상 엄청나게 다르다. 학교는 교육적 목적으로 그 일을 하고 공장은 상품의 생산으로 그 일을 한다. 教育活動이라고 해서 학교의 실과 시간에 책상을 만드는 기계적, 수공적 기술만을 익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책상을 만들면서 나무나 플라스틱 등의 재료가 지닌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과학 수업에서 배운 이론에 관련하여 알게 하고, 책상을 특징짓는 구조적 원리를 실제의 質性을 관찰하면서 익히게 한다. 그리고 책상의 생산과정과 유통체

51) 이흥우(역), 윤리학과 교육, R. S. Peters, Ethics and Education, 서울: 교육과학사, 1983, pp. 26~29.

52) 이돈희, 교육철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1983, p. 46.

계와 소비집단에 관련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책상의 심미적 특징에 대한 감각을 가지게 하고, 책상이라는 가치가 결정되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게 하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교육적 경험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의하여 고립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마음과 지력을 균형있게 제발하며 방법적 원리의 복합적 구조를 경험하게 하는 상황이다. 학문은 왜 학문이며, 技術의 創造力은 어디에서 오며, 藝術은 우리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한다⁵³⁾. 이 인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인적 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하는 이러한 노작교육의 가치는 교육적 경험을 주지주의 교육관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지주의 교육에 대한 대안적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노작과정에서는 다른 학생과의 協同心을 발휘하여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일이 수행될 때 더욱 즐겁고 보람있는 교육활동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인의 인격과 다른 개인의 인격이 相互交流될 때, 교육도 바람직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생활도 행복하게 이루어질 바탕이 마련될 것이다. 勞作活動을 통해서 內面的인 기초를 지닌 노작, 人格原理에 입각한 노작, 인간적인 심장이 맥박치는 노작이 수행된다면, 바로 그러한 노작은 敬·愛·信의 社會的인 人間精神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敬·愛·信으로서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勞作活動이나 그 사회는 교육적으로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⁵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작활동이 인간의 지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제측면에서 人間發達을 동시에 원만히 이룩하려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한 페스탈로찌가 말한 것처럼, 勞作活動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인간다움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노작현장에서 교육활동을 人格化하고 內面化 하므로써, 德性의 涵養을 도모하여 손과 발 그리고 정신이 하나로 결합되어 바람직한 人格者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全人的인 人間陶冶에 공헌하게 된다.

3. 勞作教育은 身體的 發達과 健康維持에 도움이 된다.

노작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신체적 동작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즉 눈의 움직임과 신경, 감각기능의 相互作用으로 신체내외에서 자극을 받아 느끼고, 의식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과정에서 손, 손가락, 팔, 및 신체의 기타 부분의 근육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작은 實驗, 實習, 實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노작적 技能學習의 경우에 도구, 재료 및 기계 등의 사용과 더불어 이루어진다. 따라서

53) 이돈희, “인간교육을 지향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탐색”, 이영덕(편), 인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수업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1991, pp.192~193.

54) 광상만 외 2인, 實科教育의 理論과 實際, 호서출판사, 1974, p.31.

신체를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있어서 기능의 습득이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근육동작 습성의 고정화를 뜻한다.

學業이란 주어진 어떤 사태에서 일을 할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말하며, 같은 일을 반복함에 따라 경험에 의하여 거의 무의식적인 행동, 즉 習慣化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구두끈 매기, 옷의 단추 채우기, 펜으로 글쓰기 등의 동작은 반복에 의한 습관화로 이루어진, 거의 무의식적인 신체적 행동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목재를 사용하여 책꽂이, 책상, 상자류 등의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경우, 제작자는 톱으로 목재를 자를 때 톱을 정확하게 잡고, 정확한 방향으로, 정확한 압력을 가하며 근육동작 하나 하나에 세심한 정신적 집중을 하면서 신체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톱질을 하게 되면 목적한대로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을 반복할수록 습관화되어 처음에 어려웠던 일이 점차 쉽게 느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기능의 향상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실제적 노작활동은 身體的 活動을 전제로 한다. 또한 그 신체적 활동은 자기 통제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感覺作用, 神經作用, 筋肉作用 등을 고루 수반하게 되어 결국 신체 각 기관의 균형있는 발달과 함께 健康維持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4. 勞作教育은 實踐的인 人間育성과 健全한 職業觀을 갖게 한다.

요즘 산업체 현장에서 技能人力이 부족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능인력의 확보는 앞으로 産業社會가 되면 될수록 더욱 요청되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노작교육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勞作活動은 일에 대한 실천을 전제로 한다. 학생들이 직접 땀흘려 일을 해봄으로써 그 과정에서 일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할 수 있고, 일하는데 따르는 보람과 즐거움을 체험하게 되어 勤勞尊重의 정신과 일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生活人의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다. 이러한 노작활동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自助自立하는 의지와 더불어 자조자립에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처리하는 실천적 행동을 유도하게 된다.

진로발달의 측면에서 볼 때, 학생들은 국민학교 재학 시절부터 일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트이게 되고, 또한 일하는데 필요한 태도가 형성된다. 따라서 국민학교 시절에 노작교육을 통하여 일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인식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한 職業觀 正립의 기초단계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노작교육은 실제 노작활동 과정에서 適性이나 潛在力이 개발되어 이것이 곧 직업의 세계로 轉移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특히 이공계 분야의 영역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기술이나, 기능을 토대로 직업을 얻어 알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역할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노작교육이 비록 직업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준비는 아니라 하더라도 노작활동이 지니는 구체적 生動性으로 人間性의 내면적 확립이 이룩되고, 이로써 직업활동에의 일반적 기초가 마련된다고 볼 때 건전한 職業觀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노작교육을 통하여 일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건전한 가치관과 자조자립의 정신을 기르게 되고, 또한 개성과 적성, 목적 등을 기초로 하여 바람직한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 지식과 건전한 노작태도의 형성 등이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人間育成과 건전한 職業觀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5. 勞作教育은 社會性과 道德性 發達에 기여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회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서로 기분 좋게 어울려 살면서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가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며 행동함으로써 도덕적으로 무리가 없는 살기 좋은 사회가 이룩될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이 사회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사회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모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과거 우리들의 전통사회보다 훨씬 경제적, 문화적 수준의 향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과거의 美風良俗이 사라져간다가거나 도덕관이 점차 감소되어가는 부정적 측면의 사회양상이 공존해서 우리의 생활환경을 맴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의 같은 社會環境 속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라면, 또한 교육이 바람직한 社會生活를 위한 것이라면, 노작활동도 중요한 교육활동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작교육은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문제해결에 크게 관심을 갖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며, 또한 노작이 실생활과 직접, 간접의 관계를 형성하여 社會發展의 기초를 닦고, 변화되는 미래사회에 적응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양적, 질적인 면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勞作活動은 사회의 유대관계에 필요한 특성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즉 학생들이 도구, 기계 에너지, 물질적 환경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여 해결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창조하거나 건설하는 등 개인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계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며 흥미와 관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게 되는 동시에 다른 학생들과도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맺게 된다.

노작활동을 통하여 나온 제품이나 결과는 일련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노작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는 인내심, 성실성, 근면성, 책임감, 겸손 등과 아울러 다른 학생과의 협조체제 속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협동심,

봉사정신, 양보 등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가 함양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사회가 발달할수록 요구되는 정의로운 사회(just society)를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기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勞作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한 선량한 공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스스로 노작의 고행경험을 기초로 하여 다른 사람의 노작을 존중하는 정신이 함양된다는 측면에서, 결국 勞作教育은 社會性과 道德性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고 하겠다.

V. 要約 및 結論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일하는 것을 천시하는 풍조로 인하여, 교육법에도 명시된 勤儉勞作의 공교육 방향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채, 教育現場에서도 정상적인 勞作活動이 수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의 현실적인 이유로는 주지교육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 현 사회의 지나친 학벌위주 풍토, 부모들의 빚나간 성취 지향적 교육태도와 과잉 보호적인 교육열, 그리고 편협한 학문숭상과 기능 천시풍조 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학교교육의 본래 기능인 전인적인 人間育成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노작의 의의와 성격을 밝히고, 노작교육 사상의 역사적 배경과 노작교육의 가치를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노작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던바, 그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작교육의 성격: 노작교육은 勞作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노작교육의 성격을 규정하려면, 노작의 의의를 파악해야 한다. 노작의 의의는 자아의 表現行爲로서 새로운 價値創出을 위하여 자기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실제적 人間活動을 말한다. 노작교육의 성격은 교육적 측면에서 노작의 의의를 검토할 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작교육의 성격을 규정하면, (1) 인간의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육체적 활동이다. (2)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활동에 참여하되, 작업하여 무엇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3) 일정한 절차나 기술에 익숙하게 하면서도, 개인적인 변모나 집단적인 협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활동이라는 세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勞作教育 思想의 역사적 배경: 르네상스 이후에 노작교육의 중요성이 서양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18세기까지 노작교육의 가치가 별로 인정되지 못하였고,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학교 밖에서 작업에 참여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 정도의 인식에 머물렀다. 19세기 자본주의적 생산방식과 공교육 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이 학교교육의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모어, 루터, 라베라스, 코메니우스, 로크, 루소 등에 의하여 노작교육 사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페스타로찌의 노작교육 사상은 귀족이나 자본가의 자녀에게는 지적능력과 도덕성 발달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능력을 육성하는 일반교육으로, 농민이나 빈민의 자녀, 고아 등에게는 직업적 훈련을 실시하는 職業教育으로 나타난다. 그는 노작교육이 基礎陶冶의 이념 중 기술적 능력을 길러주므로써, 지적, 도덕적 능력의 도야에 기반이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페스타로찌의 노작교육은 주지주의 교육의 보완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내적충동의 발현으로서 능동적 작업을 강조한 페스타로찌는 인간이 감각을 통해 외부로부터 사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극복하였다. 이 점에서 페스타로찌는 노작교육의 선구자라 할만 하다.

오웬의 노작교육은 공동체에서 협동하여 수행되는 육체적 활동이다. 그의 교육방식은 독특한 性格形成理論에 입각해서 행복을 느끼는 人間性을 실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밤에는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낮에는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노작교육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웬도 페스타로찌처럼 노작교육의 가치를 주지주의 교육의 보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처럼, 오웬은 교육과 노동이 병행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주의 교육방식을 주장하면서 또한 이를 스스로 실천에 옮기기도 하였다.

마르크스의 노작교육은 보수를 지급하는 협동적인 生産勞動, 그리고 여러가지 도구의 사용과 자연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결합인 綜合技術教育의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난다. 협동적인 생산노동은 공동체적 삶에 헌신하고 일한 자만이 먹을 자격이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해준다. 綜合技術教育은 이론과 실천이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 결합된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사회 전반의 생산과정을 계획하고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마르크스는 현대 산업사회의 급격한 기술공학적 발전을 예견하고, 생산노동과 종합기술교육을 통해 이에 적절히 적응 가능한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형성할 수 있는 노작교육을 구상하였다는 점에서 노작교육의 가치를 주지주의 교육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제시했다.

케르웬슈타이너의 노작교육은 公民教育論, 性格教育論과 함께 勞作教育論 등 세가지 교육론이 서로 밀접한 연관 속에서 노작교육을 통해 직업적으로 유능한 인간을 만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을 도덕화하고, 국가가 이를 통해 도덕화 한다는 것이다. 一般教育의 목적은 도덕적이고 자율적인 인격형성과 국가관의 확립 및 국가적 과제에 관한 이해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교육자가 노작을 통해 자치정신을 체득하고 도덕적 자기규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헌신이나 공동체 의식, 봉사정신의 발달, 타인과의 유대관계, 공동생활의 의식함양을 기할 수 있는 노작학교적 教育體制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의 노작교육 사상은 주지주의 교육에 대한 보완적 측면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듀이의 노작교육은 교육적 경험과 일상적 경험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도출된 하나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사회적 생활상태를 재현하는 인간의 능동적 작업

에 참여하는 형태로 제시되어, 자유롭고 내재적인 동기에 입각해서 이루어 지는데, 이러한 능동적 작업으로서의 노작교육은 놀이와 함께 교육적 경험을 구성하는 두가지 핵심요소 중 하나이면서 일반교육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듀이의 노작교육은 하나의 독립된 敎育課程이면서도, 모든 교육과정에 편재되어 들어 있는 교육적 경험의 한 측면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지주의 교육의 보완적 측면과 대안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노작교육의 가치 : 勞作教育은 주지주의 교육관에 대한 보완적 측면과 대안적 측면을 개념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1) 勞作教育은 知的發達에 도움을 준다. 학생들의 지적탐구가 높은 수준에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활동이다.

(2) 勞作教育은 全人的人格陶冶에 기여한다. 노작을 통해 인간의 지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제측면에서 人間發達에 도움이 되므로 전인적인 인간도야에 기여하게 된다.

(3) 勞作教育은 身體的發達과 健康維持에 도움이 된다. 자기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신체적 활동으로 신체 각 기관의 균형적 발달과 건강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4) 勞作教育은 실천적인 人間育成과 건전한 職業觀을 갖게 한다. 노작은 실천을 전제로 하고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형성으로 바람직한 직업관 정립의 기초가 된다.

(5) 勞作教育은 社會性과 道德性 발달에 기여한다. 노작을 통해 인내심, 성실성, 근면성, 책임감, 협동심, 봉사정신, 겸손과 양보 등 사회성과 도덕성 발달에 관련되는 올바른 정신이 함양된다.

제언 : 주지주의 교육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현행 학교교육이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보다 바람직한 전인적 인간교육으로 되기 위해서는 노작교육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의 학교교육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광상만 외 2인, 실과교육의 이론과 실제, 호서출판사, 1974.
2. 교육법전편찬회, 교육법전, 법제연구원, 1992.
3. 김기민, 노작교육의 성격과 가치,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4. 김기석(역), 페스탈로찌의 백조의 노래 외, 현대사상교양전집 4, 서울 : 경지사, 1968.
5. 김영우, "오웬", 교육사연구회(편), 교육사상가평전 : 서양편, 서울 : 비봉출판사, 1987.
6. 김정환(역), 페스탈로찌의 은자의 황혼 외, 서문문고 033, 서울 : 서문당, 1972.
7. 김정환, 교육철학, 서울 : 박영사, 1987.

8. 김창호, 마르크스의 인간관, 동녘, 1982.
9. 김태길 외 3인, 삶과 일, 정음사, 1986.
10. 노재봉(역), 유토피아, T. More, Utopia, 서울: 삼성출판사, 1976.
11. 문형만, G. Kerschensteiner의 교육사상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78.
12. 문형만(역), 교육자론, 새영사, 1985.
13. 안인희, 루소의 교육론: 에밀, 서울: 양서원, 1990.
14. 이돈희, 교육철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1983.
15. _____, "인간교육을 지향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탐색", 이영덕(편), 인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수업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1991.
16. _____, 교육정의론, 서울: 고려원, 1992.
17. 이재원, 노작의 의의와 그 교육적 가치에 관한 소고, 대한공업교육학회지, 제 16권, 제 1호, 1991.
18. 이홍우(역), 윤리학과 교육, R. S. Peters, Ethics and Education, 서울: 교육과학사, 1983.
19. _____, 민주주의와 교육, J.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서울: 교육과학사, 1987.
20. 임상희(역), 류구웅(저), 교육사상사, 서울: 백산서당, 1985.
21. 전일균, 케르센슈타이너의 노작교육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22. 정모근, 노작교육의 성격규명과 효과적 운영방안, 실과교육연구, 제 7집, 1993.
23. 제3세계 문화연구소 한울림(역), Kruspkaya(저), 크르프카야의 국민교육론, 서울: 돌베개, 1989.
24. 한기언, 서양교육사, 박영사, 1988.
25. 홍순명(역), 린하르트와 게르트루트, J. H. Pestalozzi, Linhart und Gertrud, 서울: 광개토출판사, 1987.
26. 홍치모, 독일 통일과 제 1차 세계대전, 신지사, 1974.
27. Brubacher, J. S., A History of the Problems of Education, N. Y. : McGraw-Hill Co., 1966.
28. Castles, S. and W. Wüstenberg, The Future of Education, London : Plato Press, 1979.
29. Freeman Butts, R., A Cultural History of Education, N. Y. : McGraw-Hill Co., 1947.
30. 小林澄兒, 勞作教育思想, 玉川大學出版部, 1971.

31. 小書重直, 勞作教育, 玉川學院出版部, 1940.
32. Morton, A.L., The Life and Ideas of Robert Owen, N.Y. : International Publishers, 1969.
33. Oakeshott, M., "Learning and Teaching", R.S.Peters(ed.), The Concept of Education, London : RPK, 1967.
34. _____, "Education : The engagement and its frustration", R.F.Dearden, P.H.Hirst, R.S.Peters(eds.),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reason, London : RPK, 1972.
35. O'Neill, W.F., Educational Ideologies, Santa Monica Goodyear Publishing Co., Inc., 1981.
36. Owen R., A New View of Society and Other Writings, London : Everymans Library, 1972.
37. Scheler, M., Zur Soziologie und Weltanschauungslehre, Arbeit und Ethik, 1924.
38. Silver, H., Robert Owen on Education, London : Cambridge Univ.Press, 1969.
39. 高野兼吉, ケルシエンシュタイネルの 理論, 東京べりかん社, 1970

<Abstract>

A Study on Work as Educational Value

Kim, Young-Yong

Ch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is an attempt to clarify the educational value of work through a consideration from the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thought of work education. The values of work education clarified in this study are summerized as follows.

(1) The work education is helpful to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with the activity of mental researches.

(2) Owing to the mental, emotional, moral and social development with work activities well organized in school programme, the work education is helpful to the character building of the whole-man.

(3) The work activities in school programme is helpful to the health and physical development of students on account of balanced growth of bodily organ under self-controlled movement.

(4) The practical moulding of human being and wholesome outlook of vocation with work education programme, can be hoped by affirmative attitudes to its activities.

(5) The work education is helpful to the development of sociality and morality, with the cultivation of rightspirit and favourable attitudes of endurance, sincerity, diligence, responsibility, cooperation, sacrifice, modesty and concession under this activities.